

누림에서 나눔으로의 혁명 ‘물꼬’ 터

이형진 / <아름다운재단> 정책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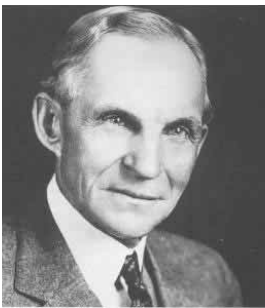


▲ 록펠러

지난 번에 소개한 카네기의 재단설립은 여러모로 20세기 적이었다. 재단 탄생은 무엇보다 문화패트론을 혁명적으로 바꾼 일대의 사건이었다.

19세기 말까지 문화패트론은 왕이나 성직자의 몫이었다. 왕이나 성직자는 백성들을 위해 종종 자선을 베풀었는데, 많은 경우가 자신의 너그러움을 증명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그들은 더욱 구휼을 위한 국가재산의 공분과정에서도 백성 위에 군림하는 노블리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육과 예술분야에 대한 이들의 노블리스는 사회문화적 권력을 장악하는 데 더없이 좋



▲ 포드

은 무기였다. 작곡가 하이든은 실내악곡을 작곡한 다음 악보에 ‘이 곡을 에스테르 하치(함부르크 대공)에게 바칩니다’는 헌사(獻辭)를 붙여놓았다. 하이든뿐 아니라 아마테우스와 같은 대예술가 역시 왕족과 귀족을 위해 기꺼이 노블리스의 수혜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 주요 원인은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철도, 자동차, 철강, 유통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구고 있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은 미국을 한단계 점증된 산업사회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부의 급속한 재편을 불러왔다. 카네기, 록펠러, 포드 등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수혜를 받으며 신흥부자로 탄생했다.

이들은 왕족도 귀족도 아니다. 스코틀랜드 모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카네기는 전신전화국 우편배달부로 출발해 철도 감독 비서를 거치면서 부를 모은 신흥부자일 뿐이었다. 록펠러나 포드 역시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저 부자인 것에 머물지 않았다. 카네기의 정신으로 비롯된 미국 재산환원 전통은 록펠러를 거쳐 포드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번 소개한 것처럼 카네기는 3억 2500만달러를 쾌척했고, 록펠러는 1913년 3억 5000만달러를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다. 포드 역시 1936년 5억달러를 들여

재단을 설립한 후 사회사업 적극 뛰어 들었다.

이들의 연이은 자선행위는 당대의 사회적 패러다임이 산업구조만큼이나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자선은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베풀 수 있는 전유물처럼 여기던 사회적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데 기여했다. 따라서 20세기 초는 그야말로 노블리스에서 오블리제(누림에서 나눔으로)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가 된 셈이다.

21세기 초입으로 들어선 지금 미국사회는 여러모로 20세기 초와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산업구조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100년전 카네기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은 산업주의의 쌀이라고 불린 철강이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지식문화주의의 쌀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지식문화주의의 쌀은 IT산업에서 바이오산업, 나노산업, 문화산업 등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다. 더불어 산업군의 유통에 따라 새로운 부자들도 속출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사회는 100년전 세워진 전통에 힘입어 부자들은 자선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흥부자로 등극하면 서둘러 자선사업에 끼어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은 100년전 기부자들은 죽기 전에 사회환원에 동참했지만, 지금의 신흥부자들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쓴다(Spend now, not later)’는 기치 아래 모인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 신흥부자도 더러 탄생했다. 머지않아 이들 가운데 한국판 록펠러가 탄생하기 않을까 기대한다.



▲ 기부의 성지 ‘록펠러 센터’